무등산에 문화의 꽃 피운다

(사)무등산권문화회의 창립 1주년

옛 산장호텔 활용 문화학교·도서관 운영… 시민에 힐링 선물

20일·8월24일 '달빛콘서트' 진행… 8월엔 인문학강좌 계획도

무등산 원효사 버스 종점에서 관리사무소와 식당가를 지나 산길로 접어들면 건물 3채가 보인다. 광주시 북구 금곡동 산 3-1번지에 위치한 옛 무등산 산장호텔. 이곳은 원효사 계곡을 지나 꼬막재와 규봉암으로 이어지는 무등산 등산로 입구이기도 하다.

산장호텔은 1959년 교통부가 광복 후 국내 명승지에 건립한 우리 나라 최초의 관광호텔이다. 역사만큼이나 간직하고 있는 사연도 많다.

60년대에는 경치가 아름다운 숲 속 호텔로 알려지면서 신혼 여행 장소로 인기를 끌었고, 70년대 후반에는 전국에서 모여든 각 분야 인사들이 세미나를 여는 장소로 각광받았다. 또 80년대는 민주화 인사들의 비밀모임 장소로 사용되는 등 광주 민주화의 아픈 역사를 간직한 곳이기도 하다.

하지만 산장호텔은 80년대 후반 시설 노후화와 주변 관광지 개발로 투숙객의 발길이 끊어졌고 2000년대 들어 리모델링 등을 고려하기도 했지만 환경단체의 반발로 이마저 여의치 않았다.

애물단지 신세였던 산장호텔이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했다. 푸른 숲 속에 음악이 흐르고, 산을 벗삼아 책을 읽기 위한 아이들의 발걸음이 이어진다. (사)무등산권문화회의(이사장 박환태·이하 문화회의)가 지난해 4월 이곳에 둥지를 틀고 '숲 문화학교'와 '숲 속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면서부터다.

문화회의는 무등산의 심장부에서 나무와 산새 소리를 벗삼아 자연을 인문학적으로 접근해보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원효사 주지 현지 스님을 주축으로 교수, 시민 활동가, 문화예술인이 중심이 됐고, 원효사 계곡과 산장호텔의 추억을 잊지 못하는 시민들도 힘을 보탰다.

문화회의는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산장호텔에서 작은 음악회를 열고 있다. 관객들은 무등산을 오르거나 내려오다 쉬어가는 등산객이다. 나무그늘과 바람소리를 벗삼아 편하게 음악을 들으면 된다.

무대에 오르는 사람과 장르는 정해져 있지 않다. 공연을 원하는 사람들이면 누구에게나 기꺼이 무대를 내준다. 잘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예술인이 지난 1년간 이곳에서 시민들을 만났다. 산을 오르다가 들르면 기꺼이 차 한잔을 내주기도 한다.

한 달에 한번은 문화회의가 직접 기획한 공연이 열린다. 주로 클래식과 가곡, 국악, 전통무용이 무대에 오른다. 시민들이 쉽게 접하기 힘든 문화를 보여주기 위해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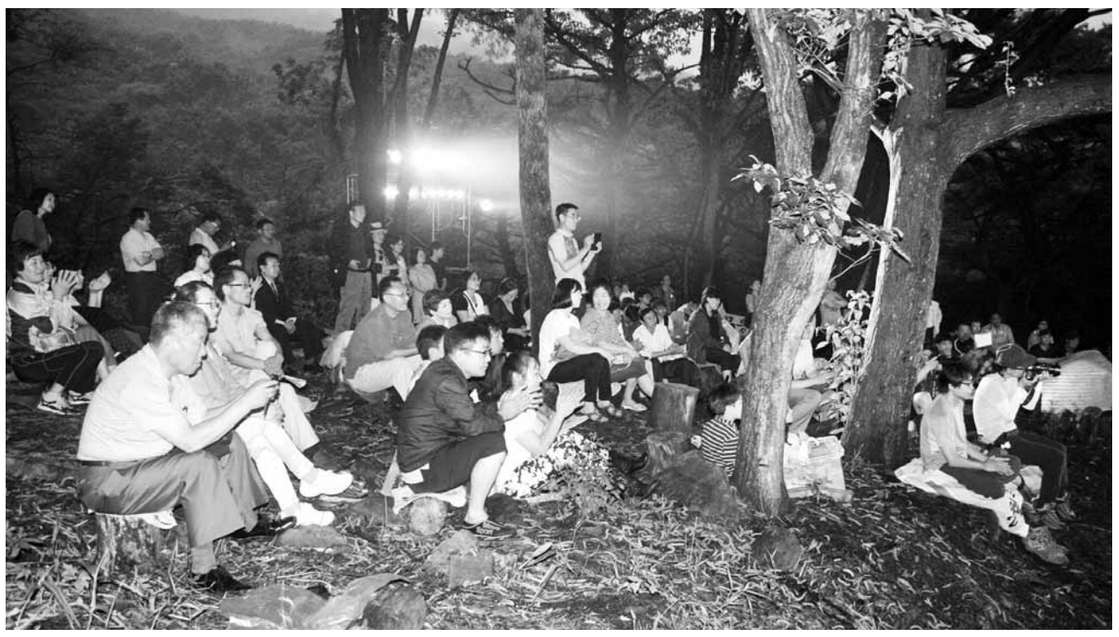
평일에는 숲 문화학교와 4000권의 책이 있는 숲 속 작은 도서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열린다. 지역미술인과 함께하는 수채화 교실, 효소에 대해 알아보는 발효교실 등이다. 오는 8월에는 무등산을 공부하는 강좌를 시작으로 인문학 강좌를 열 계획이다.

창립 1주년을 기념하는 '넵도! 내비도, 달빛 콘서트'도 지난 6월부터 다음달까지 진행된다. 보름달이 뜨는 날을 전후에 열리는 이 행사는 달빛 아래서 음악과 원효 계곡 물소리를 듣고, 함께 즐기는 콘서트다. 오는 20일과 8월24일 오후 7시에 예정돼 있다.

문화회의 오석근 운영본부장은 "지난 1년이 문화회의의 기틀을 다지는 해였다면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무등산의 문화를 꽃피울 계획"이라며 "아이들이 자연을 읽을 수 있고, 시민들은 복잡한 세상사를 떨쳐버릴 수 있는 장소로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문의 062-261-2700.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창립 1주년을 맞은 (사)무등산권문화회의가 지난달 22일 옛 무등산 산장호텔에서 개최한 '넵도! 내비도, 달빛 콘서트'를 찾은 시민들이 공연을 관람하고 있다. 〈(사)무등산권문화회의 제공〉

'기술강국' 코리아… 기능올림픽 18번째 우승 쾌거

獨 라이프치히 대회서 금 12·은 5·동6… 4연패 달성

광주·전남 6명 모두 입상… 철골구조물 원현우 MVP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열린 제42회 국제기능올림픽 대회에서 우리나라가 18번째 종합우승을 차지해 '기술강국'의 명성을 재확인했다.

41명의 참가선수 가운데 광주·전남 출신 선수 6명도 금메달 등을 수상해 종합우승에 톡톡히 기여했다. 〈관련기사 18면〉

한국은 7일 오후(현지시각) 폐막한 이번 대회에서 46개 직종의 성과를 집계한 결과, 금메달 12개와 은메달 5개, 동메달 6개를 획득해 스위스(금 9, 은 3, 동 5)와 대만(금 6, 은 4, 동 8)을 누르고 종합우승했다.

한국은 1967년 16회 스페인 대회를 시작으로 모두 27차례 출전해 18번째 정상에 올랐고, 지난 2007년 일본, 2009년 캐나다, 2011년 영국 대회에 이어 4연패의 위업을 달성했다.

지난 2일 개막한 이번 대회는 세계 53개국에서 1027명이 출전했다. 한국은 37개 직종, 41명의 선수가 나서 모든 선수가 우수상 이상을 수상하는 기염을 토했다.

광주·전남지역에서는 통합제조 직종에 출전한 이병진(21)·정찬희(20)·홍진우(20·이상 삼성전자) 선수가 공동으로 금메달을 따냈다. 한국폴리텍 광주캠퍼스 출신인 이들은 2011년 2년제 산업학사과정 컴퓨터응용금형과에 입학해 올해 2월 졸업한 뒤 삼성전자에 입사했다.

또 나주공업고등학교 출신 장민석(19·삼성전자) 선수가 기계설계·CAD 직종에서 은메달을, 같은 나주공고 출신 장준희(19·현대중공업) 선수가 배관 직종에서 동메달을 수상했다. 광주전자공업고에 재학중인 김훈(18) 선수는 그래픽디자인 직종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이외에도 철골구조물 직종에 출전한 원현우(21·현대중공업) 선수는 이번 대회에서 일본의 신페이 우츠노미아 선수와 함께 최고점을 받아 대회 MVP인 알버트 비달상을 공동 수상했으며 유럽의 텃밭인 제과 직종에서 강동석(20·한국호텔직업전문학교 3) 선수가 사상 처음으로 한국에 금메달을 안겼다.

기능올림픽은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만 22세 이하(통합제조 및 메카트로닉스는 만 25세 이하) 젊은 기능인의 잔치로 연구개발의 성과를 제품으로 구현하는 숙련기술과 일부 서비스업의 세련미를 겨루는 종합대회다.

대회 입상자에게는 금메달 6720만원, 은메달 3360만원, 동메달 2240만원의 상금과 훈장이 수여된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박근혜 정부에선 시 못 쓴다"

안도현 시인 절필 선언

안도현 시인(52)이 절필 선언을 했다. 안도현 시인(우석대 문예창작과 교수)은 4일 저녁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박근혜가 대통령인 나라에서는 시를 단 한 편도 쓰지 않고 발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8일 오후 광주일보와 통화에서 그는 "불의가 횡행하는 시대에는 역설적으로 쓰지 않는 행위도 현실에 참여하는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시를 쓰지 않고 발표하지 않을 뿐, 오래 시를 바라볼 뿐"이라고 말했다.

안도현 시인은 지난해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사라진 안중근 의사 유묵에 대해 박근혜 당시 후보에게 트위터로 경위를 물은 일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혐의로 기소돼 11일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안도현 시인은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도 거의 시를 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시인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바람직한 사회"라면서 "시를 통해 바른 세상, 사람다운 세상을

만드는데 시가 일조를 했으면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안도현 시인는 1984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시 '서울로 가는 전봉준'이 당선돼 문단에 나왔으며 '외롭고 높고 쓸쓸한' '북항', 동화집 '연어'를 펴냈다.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朴대통령, 29일부터 4박5일 여름휴가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4박5일간 여름휴가를 보낸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8일 "박 대통령이 모처에서 휴가를 보낼 계획"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김 대변인은 하지만 박 대통령의 휴가지에 대해서는 경호상의 이유를 들어 밝히지 않았다.

역대 대통령들도 대부분 7월말~8월초에 휴가를 떠났다. 기간도 3박4일 또는 4박5일 정도였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매해 여름 휴가를 갔고,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 사태가 있은 2004년과 아프가니스탄 인질사태가 발생한 2007년을 제외하고는 휴가를 떠났다.

역대 대통령들의 대표적인 휴가 장소는 충북 청원군의 대통령 별장인 청남대였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임기 5년 내내 청남대에서 여름 휴가를 보냈고, 김대중 전 대통령도 임기 마지막 해인 2002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청남대에서 휴가를 즐겼다. 반면 이 전 대통령은 해군휴양소를 주로 찾았다.

박 대통령은 과거 국회의원 시절 여름 휴가 때 서울 삼성동 자택에 머무는 경우가 많았다. 지난 2010년에 자신의 트위터에 "선풍기와 수박을 벗 삼아 집에서 피서하겠다"고 밝힌 뒤 실제로 삼성동 자택에서 수박을 먹는 사진을 올렸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빛고을문학관 부지 9월 결정

광주시는 8일 "빛고을문학관(이하 문학관) 건립부지를 오는 9월께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오는 8월까지 광주시 동구지역에서 국·공유지와 사유지를 대상으로 문학관 건립 후보지를 찾되, 시의회, 문화예술계,시민을 대상으로 설명회·선호도 조사 등 절차를 밟겠다"고 설명했다.

시는 문학관 건립 부지를 결정할 때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방침이다. 또 빛고을 문학관 건립예산으로 20~30억원을 반영해 내년 2월께 문학관에 대한 실시설계를 완료할 계획이다.

지난달 19일 '빛고을문학관 건립추진위원회'는 문학관 부지선정 절차를 중단하고 후보지 선정을 광주시에 일임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50년 전통 대를잇는 한의원
북경당 한의원
알레르기성 비염
축농증 코피 해결
비만클리닉
한의학박사 박상준 원장
동신대학교 외래교수 역임

진료문의 062)227-7575
진/료/시/간
평 일 : 오전9시~오전7시
토요일 : 오전9시~오전4시
일요일휴진,공휴일은 오전진료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080130-중-2696호

사 원 모 집

사계절 푸르른 양잔디, 친환경 나비의 고장 함평다이너스티 CC에서 함께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 모집부문
- 웨이터, 웨이츄레스, 주부사원(신입 및 경력) 0명
- 조리사 0명

■ 자격요건
- 고졸이상 학력 취득자
- 경력자 우대

■ 급 여
- 연봉제 1,900만원이상(퇴직금 별도)
- 경력자 면접 후 결정(이력서 우측상단에 희망연봉 기재)

■ 복리후생
4대보험 가입, 숙식제공, 각종 수당 지급, 경조사지원, 우수사원포상, 단체상해보험가입, 교통비 지급 등

제출서류
- 이력서(사진부착), 자기소개서, 주민등록등본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전형방법
- 우편 및 이메일, 방문 접수
- 접수기간 : 충원시까지(충원시 조기마감)
- 서류접수 후 면접일자 개별통보

접 수 처
- 주 소 : 전라남도 함평군 학교면 곡창리 산1-6
- 담 당 : 경영지원팀 오승태 부팀장
- 전 화 : 061)320-7717
- 팩 스 : 061)320-7710
- 이메일 : seungtae01@naver.com

함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자연산 참옻을 직접달여 만든 14년 전통
참옻 보양식전문점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착한 가격"
참옻음식 토종 참옻닭 / 옻 청둥오리/ 옻 삼계탕
한방음식 한방 백숙 / 한방 청둥오리 / 촌닭백숙 삼계탕
토종참옻닭 (3인분, 식사 술 포함) 40,000원
촌 닭 백 숙 38,000원
옻의 효능
위염, 위궤양 효과 / 과음 및 숙취해소 / 장부실 개선 및 어혈 제거/항암작용, 암세포 성장 억제 / 원기회복 속이 냉하거나 손발이 찬데

함양옻닭 062)515-5757(옻칠옻칠)
광주광역시 북구 유동 9-3 해피뷰병원 뒤(구,삼성병원), 수창초교 후문 건너편